

도내 학부모들 소통 · 화합의 장

올 전북학부모한마당, 내달 1일 본청 야외마당 일원서
홍보 · 전시 · 체험마당 등으로 구성... 프로그램 다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월 1일 본청 야외마당 일원에서 '2025 전북학부모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학부모회협의회와 공동 주최·주관하는 이 행사는 시·군별 학부모 학부모회 활동 결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홍보마당·전시마당·체험마당 등으로 구성, △지역별 학부모회 활동 및 동아리 활동 사례 전시 및 체험 △가족 캐리커처 △심폐소생술 교

육 △페이스페인팅 △미술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올해는 전북과학교육원의 이동형 과학교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건강증진교육센터의 찾아가는 학생건강지원 서비스도 선보인다. 이동형 과학교실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과학 체험이 진행, 과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학생건강지원 서비스는 AI 기반 건강측정체험, 디지털 시

력·정력검사, 1:1 전문상담 안내 등을 통해 자기주도적 건강습관 형성을 돕는다. 또한, 현장에서는 학생건강상담 누리집 접속 QR 코드를 안내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활성화하고,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행사 시작 전후로는 다양한 축하공연도 마련됐다.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댄스 공연, 에너지 넘치는 특공무술 시범, 따뜻한 하모니를 전하는 어머니합창단 무대, 활력 넘치는 점령, 에어로빅, 흥겨운 사물놀이 등이 펼쳐진다. 특히 ESG 친환경 축제를 주제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텀블러를 지참한 참여자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 등 일상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문화 확산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지숙 전북학부모회협의회장은 "전북학부모한마당이 아이들과 학부모, 학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의 바른 목소리가 교육현장에 더욱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부모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사회구성으로서 역할을 꽃피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라며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교육 참여를 통해 교육정책을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대전교육청·충남대학교 사범대학이 공동 주관한 IB 교원 역량강화 연수단이 전북특별자치도내 IB 후보학교인 전주교대 전주부설 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 IB교육 성과, 대전지역 학교에 전파

대전시교육청·충남대 IB 연수단, 전북 IB 후보학교서 현장실습
전주여고·순창고·익산부송중·전주교대부설초서 3일에 걸쳐

대전교육청·충남대학교 사범대학이 공동 주관한 IB 교원 역량강화 연수단이 전북특별자치도내 IB 후보학교인 전주교대 전주부설 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연수단은 16일 전주여고(교장 이영숙)·순창고(교장 양동준)를 시작으로

22일 익산부송중(교장 정숙주), 27일 전주교대전주부설초(교장 민환성) 등 총 3일에 걸쳐 벤치마킹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초·중·고 교원 120명을 대상으로 수업 참관, 학교장 특강, 코디네이터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의 IB 운영 사례가 우수 벤치마킹 모델로 자리매김했음

을 보여주는 결과다. 특히 전북의 수업·평가 설계·운영 체계가 타 시·도 연수에서 우수한 현장 학습 모델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교실 수업과 평가의 본질적 변화를 위해 학교 맞춤형 컨설팅·공개수업·공동 연수 등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며 "전북 교실에서 축적된 IB 운영 경험이 현장 실습형 교류를 넓혀 우수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뇌졸중 후 편마비 후유장애 개선 재활치유농업 기술이전 확산’ 성료

전주기전대 치유농업과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전) 치유농업과는 농촌진흥청 산하협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뇌졸중 후 편마비 후유장애 개선 위한 재활치유농업 기술이전 확산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치유농업을 통한 재활치료의 과학화 및 현장 확산을 목표로 전라권 4개 농장이 공동 참여한 지역연계형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참여 농장은 △한국그린케어(무안) △늘품치유농장(익산) △꽃다비팜(김



제) △무등산커피농장(광주 북구)으로, 전주기전대학이 개발한 교육매뉴얼과 제조영상을 기반으로 현장 적용이 이뤄졌다. 특히 전주보훈요양원에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16회에 걸쳐 편마비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한 원에 재활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텃밭가꾸기, 향주머니 만들기, 화분심기, 팜파티 등을 통해 신체기능과 정서안정을 함께 증진시켰다. 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 학생들이 전담보조로 참여하며 '함께하는 돌봄형 치유교육' 모델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크다. 최현우 교수는 "농업활동이 재활치료의 대안이자, 돌봄 복지의 한 형태로 기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성과"라며 "향후 전북권 복지시설과 협력해 치유농업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한 축으로 확장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2025 NI2.0 AID 해커톤 대회' 서 두각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2025 NI2.0 AID 해커톤 대회' 및 리더십 워크숍에 참가, 신산업·차세대 기술 기반의 글로벌 문제 해결 아이디어로 두각을 나타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신산업특화사업2.0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최근 열렸다. 전국 회원대학의 사업담당 및 학생 약 70명이 참여해 GenAI, AWS Skill Builder, PartyRock 등 최신 기술을 활용

한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SDGs)과 글로벌 교육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무박 2일간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전주비전대 신재생에너지과 유은강, 황상현, 류민석 학생이 각각 다른 팀에 소속돼 협업과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발휘해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을 수상했다. 참가 학생들은 "처음 만난 다른 대



학 학생들과 밤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의견을 조율하며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해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값진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수의학과 한재익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

전북대학교 한재익 교수(수의대 수의학과)가 국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정책 추진과 현안 질병 대응,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9일 전북대에 따르면 한 교수는 환경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정책 추진과 현안 질병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야생동물 질병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을 운영,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질병 감시체계 구축 등 우리나라 야생동물 질병 조사 체계 구축과 질병 발생 현황 조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생태보전 안전망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현재 한 교수는 전북대 수의과대학에서 야생동물의학과 외래생동물의학 분야를 담당하며, 학부와 대학원 교육뿐만 아니라 동물료료센터의 특수동물 진료와 전북야생동물구조센터 센터장으로서 야생동물 진료 및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환경부의 야생동물 질병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 운영책임자로서, 국가 차원의 야생동물 방역 및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을 이끌고 있다. 한재익 교수는 "이번 수상은 전북대 수의과대학과 야생동물구조센터가 함께 쌓아온 현장 중심 연구 성과가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인수공통감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대응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신종 마약류·상담 전문성 강화 오늘까지 전문가 초청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30일 이틀간 전주 왕의지미에서 전문가 초청, 신종 마약류 및 상담 전문성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마약류 중독 사전과 초기 상담 기법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높이고, 예방교육 확대에 따른 수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약물 관련 분야 전문가 강의로 이뤄졌다. 먼저 29일에는 △전북약사회 서소영 약사의 '신종 마약류 및 중독의 이해'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소망 팀장의 '초기 중독 의심 학생 상담 및 대응'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30일에는 △법무법인 LKB평산 김희준 변호사의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실태 및 법률 적용 사례' △정운대학교 강경과 교수의 '초기 중독 의심 학생 상담 및 대응'을 주제로 한 강의가 펼쳐진다.

/장은성 기자

지역혁신 핵심 축, 대학의 역할 강화

전주대,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
농식품 기술·연구성과 선보여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이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참가해 지역농식품 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업사이클링 기반 기술과 연구성과를 선보인다.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발효식품 산업 박람회로, 20개국 350개사 420개 부스 규모로 운영된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 업사이클링 기반 생명·전환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주제로 연구개발(R&D) 성과를 산업 현장과 연결하고, 지역 식품산업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실증 중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특히 각 일자별로 △조리 방식 기반 건강 맞춤형 식품 서비스 시

스템 △농식품 부산물 성분 분석 및 생리활성 △식품소재 개발을 위한 농식품 부산물 정밀가공 및 기능성 물질 활용 기술 △기업 맞춤형 업사이클링 제품개발 및 K-FOOD 상품 기술 연구 △지역 특화 농식품 업사이클링 제품 기술 개발 및 상품화 등을 중심으로 전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주대학교 RISE 사업단이 주도하는 다양한 공동연구 결과물 및 기술 상용화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식품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동욱 RISE사업단장은 "이번 엑스포 참가를 통해 지역혁신의 핵심 축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 확산과 실질적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체험 중심 안전교육 '큰 호응'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안전체험관 체험 교육생
누계 인원 1000명 돌파... 운영 6개월 만의 성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주학생교육문화관(관장 김형태)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안전체험관 체험 교육생 누계 인원이 1,000명을 돌파했다. 이는 운영 6개월 만에 이룬 성과로, 관내 유치원생(4세~5세), 초·중등 학생 및 전주 시민까지 폭넓은 대상이 아우른 체험중심 안전교육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안전체험관은 △응급처치 △지진대피 △화재대피 △완강기 탈출 △화재진압 등 5개 과정으로 구성, 직접 몸으로 겪어보는 생생한 체험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이론으로만 배워 익기 쉬웠던 응급상황 대처법을 체험으로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형태 관장은 "천 명이 넘는 학생과 시민들이 안전체험 교육을 이수한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에 힘쓰고, 지역사회 안전 문화 확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가족뮤지컬 '수박수영장' 관람 기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일 전주 학생교육문화관에서 가족뮤지컬 '수박수영장' 공연을 총 3회에 걸쳐 선보였다고 밝혔다. '수박수영장'은 그림책 작가 안영달의 동명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창작 뮤지컬로, 수박 속 수영장에서 펼쳐지는 한여름날 아이들의 상상세계를 감성적인 무대 언어로 표현한 작품이다.

1~2회차는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이 단체로 관람하고, 3회차는 3~5세 유아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무주·임실 등 원거리 지역에서도 단체관람 신청이 이뤄졌으며, 가족이 함께 참여한 자녀 공연은 예매 시작 20여 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국역 '송사집' 완간 기념 학술대회

31일 진리관 성연홀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오는 31일 진리관 성연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사집(松沙集)' 번역 완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고전번역원이 30년간 추진 중인 협동번역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주제는 '송사 기우만의 사상과 문학'이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내 호남권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팀(연구책임자 김진우)이 2013년 '존재집', 2015년 '문곡집', 2016년 '노봉집' 완간을 기념한 학술대회에 이어, 오랜만에 '송사집' 번역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행사는 협동번역사업팀 연구원 이주형(전주대)의 사회로 한국고전학연구소장 변주승 교수를 좌장으로 총 4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주제발표는 △제1주제: '송사 기우만의 당대사조전 역사 전도(轉倒)의 격류에' (전주대 오항녕 교수) △제2

주제: '송사 기우만의 교유 관계와 학문 활동-노사 학맥과 유학 전통의 지속에 유의하여' (군산대 박학래 교수) △제3주제: '외필(輿筆)의 그늘-기우만, 김훈, 그리고 외필논쟁' (전남대 이항준 교수) △제4주제: '송사 기우만이 남긴 傳 연구' (원광대 최성은 교수)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는 '송사집' 번역에 직접 참여한 전주대 협동번역사업팀(전형운·강지혜·장성덕·유영봉)이 함께 한다. 전주대 협동번역사업팀은 1931년에 간행된 '송사집' 초간본을 저본으로 삼아 지난 2020년 12월에 11권을, 2021년 12월에 나머지 7권을 번역 출간해 총 18권으로 완역 출간했다. 그간 기우만의 방대한 저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번역 완간은 인물사·사상사·문학사뿐만 아니라 지역 역사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실증자료로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장은성 기자